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귀중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회는 2005년 6월 23일부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남방과건 보국대 (조선보국대)」 및 「일본군대제 성노예로서 하이난섬에 연행된 조선인」의 피해진상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그 후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남방과건 보국대 (조선보국대)」로서 하이난섬으로 끌려간 옥중자의 명부공개와 한국정부로의 인도를 일본정부에 요구함을 포함하여 몇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일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3월이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를 계승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남방과건 보국대 (조선 보국대)」에 대한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회의 진상조사 신청에 연관되어 있으니 질문합니다.

一, 「조선촌」의 「전시관」에 있었던 유리케이스 안의 5구 유골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

작년 2011년 10월 10일날에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회의 김정미와 佐藤正人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朴聖圭사무국장 (당시)을 만나 「조선촌」현상과 「조선촌」의 「전시관」(「迎樂齋」)에 있었던 유리케이스 안의 5구 유골이 없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없어졌던 5구 유골에 대해 1언제, 2누가, 3왜, 4어디로, 가져 갔는지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朴聖圭사무국장 (당시)은 그 사안은 외교부를 통해 중국정부에 문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중국 廣州 한국총영사관에 조사의뢰를 하겠다고 언명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회가 이 전시관에 있었던 유골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은 2009년 6월 26일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회의 제 17회 하이난섬 「현지조사」 때였습니다. 이 때는 전시관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유리 케이스안에 유골이 없는 것을 창 밖으로부터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제 22회 하이난섬 「현지조사」 때 11월 3일에 「조선촌」을 방문하여 전시관안으로 들어가 유골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에 관해 지난 11월에 중국에서는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한국에서 텔레비전에서 보도되었습니다.

二, 『경향신문』 2012年 5月 3日付 記事에 대해.

김향미기자에 의한 이 기사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회밖에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 직접 질문합니다 .

1, 이 기사에서는 “중국 하이난을 찾은 유족은 모두 15 명” 이라고 돼 있는데 이 유족분들은 다 “남방파견 조선보국대” 유족들입니까 ?

2, 이 기사에서는 “애초 추도제를 천인갱에서 지내려 했으나 일본측에서 반대했다” 고 돼 있습니다 .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이번 경우 일본측에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반대했 습니까? “일본측” 이라는 것은 일본정부를 말합니까? 그렇다면 일본정부의 어느 기관입니까?

3, 이 기사에는 “추도순례 프로그램의 예산 중 3 분의 1 을 일본에서 부담하고 있다 . 위원회 관계 자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일본이 추도제 장소나 일정에 간섭을 하기도 한다” 고 말했다” 고 써어져 있습니다 .

“추도순례 프로그램의 예산 중 3 분의 1 을 일본에서 부담하고 있다” 는 것은 사실입니까? 또한 “일본이 추도제 장소나 일정에 간섭을 하기도 한다” 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일본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간섭을 해 옵니까?

4, 이 기사에는 “일본은 ‘천인갱’ 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학살은 그 당시 기업이 진행한 일이라 일본군에 의해 동원했던 조선인들과는 달리 책임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고 써어져 있습니다 .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일본 측에서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런 입장을 표시했습니까? 일본 측에서 이런 입장을 표시하기 전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 는 이 문제에 관해 일본 측에 대해 어떤 문의를 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 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5, 이 기사에서는 “위원회는 2006 년 하이난섬 실태조사를 거쳐 113 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고 써어져 있습니다 .

2006 년에 하이난섬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진상조사신청을 한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회에 하이난섬실태조사의 경과와 조사내용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또한 이 기사에서는 “113 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는데 그 113 명은모두 「조선촌」 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7, 이 기사에는 「유족들의 바람은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위원회 측은 “일제 동원 피해지역이 중국, 일본, 러시아 각국에 넓게 퍼져있는 데다 고국으로 봉환하는 절차를 밟으려 해도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며 “유해 송환과 함께 추모비를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 고 말했다」 라고 써어져 있습니다.

“위원회 측” 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①, 위원회는 현재까지 하이난섬의 조선인 희생자의 유골을 「봉환」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외교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②, 위원회 측은 현재 하이난섬의 조선인 희생자의 「유골송환」 과 「추도비석 건설」 을 위해 어떤 「방안」 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2013年1月말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年12月21日

기주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회  
(紀州鉦山の眞實を明らかにする会)

## 《참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32153155&code=9402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32153155&code=940202)

『경향신문』 입력 : 2012-05-03 21:53:15 | 수정 : 2012-05-03 23:35:02

사건 · 사고

“아버지” ... 한 서린 ‘천인갱의 눈물’

하이난 | 글 · 사진 김향미 기자 [HYPERLINK "mailto:sokhm@kyunghyang.com"](mailto:sokhm@kyunghyang.com) sokhm@kyunghyang.com

글자크기

###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중국 하이난성 추도순례

지난달 25 일 중국 하이난성 쑤야시 난딩촌. 열대림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자 허물어진 담장 안에 한국어로 새겨진 몇 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그 앞에 약 70 년 만에 아버지와 형제의 유골을 찾아온 사람들이 섰다.

“아버지...”

누구도 더 이상의 말을 잇지 못했다. 모두들 띄약별 아래 차곡차곡 쌓이는 국화 꽃송이만 응시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 군과 기업에 의해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집단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천인갱 (千人坑)’ 이다.

1000 명이 넘는 조선인이 한꺼번에 묻혔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写真】** 희생자 유족 조양자씨가 지난달 25 일 열린 추도제에서 추도사를 읽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일▲ 1000 여명 집단학살 현장

70 년 만에 유골 앞 사부곡

일본 반대, 식당서 제 올려

경남 진주에서 온 최선광씨 (72) 는 “아버지가 순천 형무소에서 이곳으로 끌려와 엮서 한 장 보낸 게 전부” 라며 “유골은 못 찾아도 이곳 흙 한 줌 가져다가 고국에 있는 어머니 · 아버지 합

봉한 묘에 뿌려 드리고 싶다” 고 했다.

최씨처럼 아버지나 형제의 흔적을 찾아 중국 하이난을 찾은 유족은 모두 15 명이다. 이들은 모두 60~70 대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 는 2006 년부터 매년 1~2 회씩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해외 추도순례’ 를 진행하고 있다.

천인갱에 오기 전 유족들은 썬야시의 한 한국 식당에서 추도제를 지냈다. 애초 추도제를 천인갱에서 지내려 했으나 일본 측에서 반대했다.

추도순례 프로그램의 예산 중 3 분의 1 을 일본에서 부담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일본이 추도제 장소나 일정에 간섭을 하기도 한다” 고 말했다.

일본은 ‘천인갱’ 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학살은 그 당시 기업이 진행한 일이라 일본군에 의해 동원했던 조선인들과는 달리 책임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추도제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준비해온 플래카드는 온전히 펼치지도 못했다. 식당 내 구석에서 제수를 차려놓고 유족들이 제를 지냈다. 상 한쪽에는 유족들이 가져온 빛바랜 사진들이 놓였다.

조양자씨 (69) 는 추도사에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는지...” 라며 “언제나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았다” 고 했다. 또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고 노여워 마시라” 며 “불효자의 바람은 아버지가 이승에서의 한을 푸시고 저승에서 편안하게 고이 잠드시는 것” 이라고 했다. 조씨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느라 추도사를 몇 번이나 멈췄다.

부친이 일제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유희중씨 (77) 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곳에서 숨어서 제를 지내야 하느냐” 며 위원회에 항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본에서 추도순례 직전에 알려와 경황이 없었다” 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집단학살돼 묻힌 중국 하이난성 썬야시 ‘천인갱’ 에서 지난 달 25 일 피해자 유족들이 추모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6 년 하이난도 실태 조사를 거쳐 113 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1939 년 하이난을 침략한 일본은 부족한 노동자를 충당하기 위해 ‘모집’ 으로 위장해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다.

또 1940 년대 조선인 수형자들을 상대로 감형해주겠다고 속여 ‘조선보국대’ 라는 이름으로 8 차례에 걸쳐 2000 여명을 하이난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여성들이 200 명이 넘는다는 증언은 있으나 확인된 피해자는 1 명이다. 2001 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이난에서 유골 발굴 작업이 실시돼 109 위의 유해를 확인했지만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들의 바람은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위원회 측은 “일제 동원 피해지역이 중국, 일본, 러시아 각국에 넓게 퍼져있는 데다 고국으로 봉환하는 절차를 밟으려 해도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며 “유해 송환과 함께 추모비를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 고 말했다.